

다음세대 위원회 교회탐방팀, 종합 보고서

○ 팀원 구성

팀장 : 노길호 장로

교역자 : 김기선 전도사

팀원 : 박윤정 정나림 장지혜 (이하집사) 유성민 청년

○ 목표설정

- 가정 및 통합예배의 모델이 되는 교회 탐방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계획한다.
- 교회학교가 활성화된 교회탐방을 통해 우리 교회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을 계획한다.

○ 모임 진행 사항

구분	날짜	목표 및 내용	완료
1차	3월 26 (주일)	팀원 소개 및 인사, 목표 방향에 대한 토의	○
2차	4월 9 (주일)	탐방 전 1차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검토.	○
3차	4월 12일(수)	'충신교회 탐방' 이도복 교육디렉터 인터뷰	○
4차	4월 16일(주일)	충신교회 탐방 후 토의	○
5차	4월 23일(주일)	탐방교회 조사를 위해 가정의 힘 서지현 팀장 미팅	○
6차	5월 7일(주일)	'세대로교회' 탐방일정 조율 (5월11일 확정!)	○
7차	5월 11일(목)	'세대로교회 탐방' 교육디렉터 서은선 전도사 인터뷰	○
8차	5월 28일(주일)	'예수향남교회' 탐방일정 조율 (6월11일 확정!)	○
9차	6월 11일(주일)	'남서울은혜교회' 탐방일정 조율 (8월29일 확정!)	○
10차	6월 28일(주일)	'예수향남교회 탐방' 교육디렉터 손하람목사 인터뷰	○
11차	8월 29일(화)	'남서울은혜교회 탐방' 교육디렉터 류창주목사 인터뷰	○
12차	9월 10일 (주일)	예수향남교회 및 남서울은혜교회 탐방 후 토의	○

○ 종합 보고 순서

- 1) 1차 충신교회 탐방 보고서
- 2) 2차 세대로교회 탐방 보고서
- 3) 3차 예수향남교회 탐방 보고서
- 4) 4차 남서울 은혜교회 탐방 보고서
- 5) 교회 탐방을 통해 우리 교회 활성화 방안 제시

충신교회 탐방 보고서

A. 충신교회탐방

일시: 2023년 4월 12일 1시 20분 ~ 3시 20분

인원: 이지호 목사, 김기선 전도사 / 박윤정 집사, 정나림 집사, 장지혜 집사
노길호 장로, 유성민



<충신교회>



<교육 디렉터 이도복 목사>

B. 교육

1.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 및 방향성

1) 자녀 신앙교육에 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회

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위해 충신교회는 37년 전부터 '아기 학교'를 운영해왔다. 부모가 중심이 되어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 교육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주중 신앙이 주일 신앙으로 연계가 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2) 교사 순환제 시행 (교사 7년, 부장 부감 3년)

① 교사 순환제 시행이유

교사 순환제 시행이유는 교사에게 영적인 도전을 드리기 위함이며 또한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섬기면 신입 교사나 신입 교역자를 존중하지 못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래 계신 분이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

② 교사 순환제 시행규칙

부서에서 7년이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다. 충신교회의 경우에 몇몇 교사들의 저항이 처음에는 강하게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이 되어 잘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충신교회에서 교사는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하는 문화가 있어 부서 이동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교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있더라도 교사를 그만두는 부분은 감수해야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7년 순환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행규칙을 정해서 진행해야 한다.

3) 청년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교육

장년 교사 경우 신학적인 부분에 관한 관심이 높으나 청년 교사 경우 관심도가 낮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사 대학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 정답을 정해주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주고 경청해주는 교사가 되도록 한다.
- 코칭형 교사가 되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교사가 되도록 한다.

4) 교육부서 교사 부족 문제 해결 방법

① 고등부 때 교사 지원신청

총신교회는 매년 교사 지원신청을 받는데 고등부 3학년 진로를 정할 때 교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고1, 2학년 때 '너희들의 꿈은 교사이다'라고 주입하면 중3부터 교사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등부 졸업 때 청년 교사들의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진다.

② 청년 교사에 관한 관심과 배려

신입 청년 교사는 청년부 적응을 위해 4월부터 부서에 투입되도록 한다. 졸업, 취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이 굳건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대부분 6~7년 정도 후에 많이 그만 두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항상 쓰임 받고 채움이 없지 않도록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장년 선생님들이 함께하도록 한다.

5)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라.

소년부 유치부 아이들은 설교 시간에 노트필기를 하고 공과 공부 때 노트필기를 기반으로 교사가 코칭형 질문을 한다. 그 결과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된다. 예배 노트는 부서에서 만들거나 기성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2. 자녀의 온전한 신앙교육을 위한 교회와 가정연계 및 가정예배

1) '교회와 가정의 연계' 필요성

① 교회학교의 본질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프로그램은 결국 **가정과 연계**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재미있다는 것은 흥미 위주의 목회 방향성을 갖는 것인데 총신교회는 예배 위주의 목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유아, 유치부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 자세가 남다르다.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집중을 잘한다. 그 이유는 예배 때 말씀과 암송 구절을 부모와 공유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가정과 연계이다. 아이들이 이미 집에서 하고 오기 때문에 참여도가 무척 높다. 이벤트를 통한 아이들의 관심은 한계가 있고 **결국 가정과 연계가 중요하다.**

2) 가정예배의 필요성

총신교회는 주보에 가정예배지가 매주 실리며 가정예배 훈련을 많이 시킨다. 가정예배 학교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부모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주중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가정예배 교육을 위해 미국에 방문하여 '오렌지교제'를 연구한 결과 교제 없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후 D6쉐마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는데 총신교회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하였던

가정연계프로그램과 연관이 있었다. 이것은 부모의 역량을 훈련하고 제자화 하는데 집중한다. 즉 교제를 의존하지 않고 부모의 언어, 행동, 교육, 입시 등등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게 된다.

가정예배 학교는 이벤트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강사를 모셔서 들어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결국 이벤트로 끝났다. 가정예배 학교는 부모들의 요청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8년 차 즉 8기가 되었다. 기수를 졸업하신 분들을 확인해보면 가정예배 지속률이 90%가 넘었고 가정예배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가정예배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3) '가정예배'의 방법과 효용성

① 여러 가지 가정예배의 방법

- 총신교회 가정예배 모델은 11가지가 있다. 가정예배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예배, 암송, 필사, 독서, 대화 등 각 연령별에 맞는 가이드를 활용한다. 아이들 발달연령에 따라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도록 기획하며, 전통형 가정예배를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예배의 형식을 바꾸도록 권면한다.
- 가정예배를 돕기 위한 보드 판을 만들어 미션을 수행하면 상품 및 간식도 보내준다. 가정예배 말씀암송, 찬양, 나눔을 카드로 만들어 예배순서를 3가지로 구분하여 매번 새롭게 예배를 디자인한다. 가정예배 식탁보를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가정예배 테이블보는 TV 덮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녀가 주도하는 예배

- 부모가 가정예배를 주도하지 않고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한다.
- 신앙의 전수가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흐르지만, 가정예배를 아이들이 주도하도록 했을 때 아이들의 신앙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한다. 부모가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아이들이 가정예배 달력에 체크하기 위해 아이들이 부모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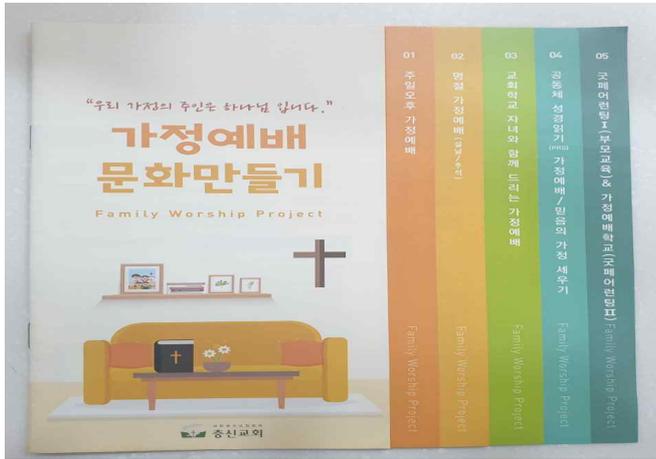
③ 가정예배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

5주간 가정예배 학교 미션을 주면서 도전하게 한다. 1주 차 때 미션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을 하도록 하는데 가정에 남편, 아내, 자녀가 서로 사과를 하면서 가정의 변화를 보게 된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에게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진다.

④ 가정예배를 통한 예배의 회복과 참여

- 부모가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신앙이 최우선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시험을 앞두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련 때 학원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가 신앙 우선인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하게 된다. 학원을 가더라도 끝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경험한다.
- 코로나 이후에도 30, 40대 예배 참석률 증가
한국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흔들리고 온라인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세대가 30, 40대이다. 하지만 부모교육 중에서 가정예배를 통해 총신교회에서는 30, 40대가 줄지 않았다.

4) '가정예배'를 돕는 자료



■ 가정예배 자료#1 <가정예배 문화 만들기>

사용 방법 : 5가지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1. 주일 오후 가정예배
2. 명절 가정예배
3. 교회학교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4. 공동체 성경읽기, 가정예배 / 믿음의 가정 세우기
5. 갓페어런팅(부모교육) / 가정예배학교



■ 가정예배 자료#2 <랄랄라 가정예배 카드>

사용 방법: 예배 카드를 통해 순서배열을 아이들이 구성하도록 한 후 순서에 따라 예배 진행한다.

1. 사랑카드 : 서로 10초 동안 바라보기, 한 주 동안 기억에 남는 일 말하기.
2. 찬양카드 : 카드에 나온 찬양 제목으로 찬양을 한다.
3. 말씀카드 :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

3. 교육부 전도와 출석

총신교회 교육부는 출석의 800여 명 되고 교사는 300명 정도 된다. 부활절 즈음에 생명나무 축제를 하고 부서별로 1, 2학기 때 1회씩 진행하고 전도 VIP 대상자를 제출하고 기도한다. 아이들을 따라서 부모가 출석하는 예도 있다. 30, 40대 새 신자들이 대부분 교육부 소식을 듣고 왔다는 비율이 높다. 30, 40대 요즘 신앙적 요구(needs)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자녀 신앙 교육이 좋은 교육부가 있는 교회를 찾아온다.

4. 교육부 재정 및 예산편성

연말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가정 먼저 교육부 예산을 책정한 후 다른 부서 예산을 정한다. 코로나 기간에 예산이 삭감된 부서가 꽤 있었지만, 교육부는 사업 확장되고 예산이 증액되었다.

① 교육부 비전 쉐어의 필요성

- 교육부 예산 증액의 사유가 충분하지만, 설득 과정에서 소통이 필수적이다.

다음 세대가 중요시되는 문화와 지속적인 재정 위원들이 교회학교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 지는 게 중요하다. 수시로 장로님들을 만나면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고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계속 이야기한다 즉 비전쉐어(Vision Share)가 되어야 교육부 비전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고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요즘 젊은 세대 즉 MZ세대 알파 세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및 리더쉽 그룹과 교역자에 간담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며 어느 교회나 100% 공감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은 없지만, 최대한 교회 안에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② 중, 고등부 예산 비율을 필요한 이유

교회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중고등부는 특별히 특별예산편성을 한다. 영유아 유치부도 중요하지만 중, 고등학교 신앙이 본인 신앙고백이 되지 못할 때 청년까지 이어지기 어려우므로 전도 잔치와 관련 행사에 예산을 편성한다.

5. 총신교회 '가들리 가든'(Godly Garden)프로그램 소개

총신교회 교회학교의 가장 큰 뿌리는 '가들리가든'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가들리 가든 안에 들어있다. 가정예배학교, 부모학교, 아이들 양육프로그램의 베이스가 이 프로그램 안에 있다. 1단계가 부모 교육이다. 가들리 가든의 목표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 아이들이 가들리 가든에 열심히 참여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들의 꿈을 찾아 성장하도록 미국 비전 전도 여행을 한다. 소년부 경우 아이들의 진로 적성, 자기주도 학습 등을 기독교 가치에 맞게 진행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들의 비전을 적어서 제출한다. (예: 아이 중에 IT에 대한관심이 높으면 구글, 애플 본사를 방문한다 한 명 당 멘토를 10명 정도 현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적, 학업적 성취도가 스스로 높아진다. 부모가 교회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우리 아이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목표를 갖는다. 가정예배, 부모교육, 가들리 가든 관련 5, 6월에 책이 나오고 7, 8월쯤 세미나 준비 중이다.

6. 세대통합예배 진행 방법 (충신교회)

충신교회는 세대통합예배가 유행하기 전부터 온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특별 새벽기도회 때 또는 온 가족 새벽기도회(매월 초 토요일)에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오후 찬양예배 때 교구별로 한 달에 한 번 드린다.

① 자녀와 부모의 통합예배모델

본 예배 때 3세대(손주, 부모, 조부모)가 모이는 예배를 모델로 그리지만, 현실은 부서예배 때 부모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오시면 혼란스러우므로 한 달에 한 번 반별로 초청을 해서 함께 부서예배를 드린다. 부서예배를 드릴 때는 특송, 사회, 기도를 맡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부모들이 인식하고 믿지 않는 아빠들도 나온다. 예배 후 부모와 교역자,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가 만나는 교제가 이뤄지고 신뢰감이 쌓이며 아이들이 분반공부를 하고 있을 때 기도 제목과 교회 목회철학을 나누고 부서에 대한 소개도 한다. 부모가 예배에 참석하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

② 자녀에서 조부모까지 통합예배모델 (여름성경학교)

부모초청 예배는 중고등부까지도 함께 드린다. 부모와 청년 선생님들과 관계에 라포가 형성되어 심방 전화하기에 좋으며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해서 성경학교 한 달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문 축복문을 적어 달라고 해서 축복송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불러준다. 조부모가 신앙전수의 영향력을 갖는다. 조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뿐 아니라 노년의 사명이 멋있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전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도록 한다. 곧 조부모 학교를 진행할 계획이다.

7. [TEAM FEEDBACK]

김기선 전도사 : 충신교회에 대한 간략한 내용정리

먼저 충신교회 탐방관련 참여하지 못 한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신교회는 가들리가든 이라는 모든 프로그램의 종착지와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더 탄력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와 세대통합예배를 진행하는데 있어 잘 참여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들리가든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수행한 학생은 자신의 꿈과 관련된 나라와 회사를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충신교회의 중심사역중 하나는 가정과 교회의 연계입니다. 예배에 부모를 참석시키거나 조부모님까지도 참여시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예배의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하며 부모를 교육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일 예배만으로는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기 어렵고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그 해법을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아이들 신앙교육을 하며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교육이 잘 되면 교회의 허리가 되는 30~40대 성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충신교회에서 하고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신교회 탐방 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노길호 장로

부모만 훈련 받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가정예배 교육을 받으면 가정예배가 더 잘 이뤄질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부모의 생각도 듣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총신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최종목표는 가들리가든 이지만 저는 가들리가든은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할 뿐 진짜는 객차부분에 해당하는 가정예배와 교회와 가정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예배가 잘 정착이 되면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쉽게 이탈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정 안에 예배를 통한 대화가 이뤄지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 부모를 참석 시켰을 때 통합 예배를 추구하는 장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게 되면 부모를 의지하다보니 예배에 독립적으로 참여를 잘 하지 않는 모습이 일부 나타났고 모든 부모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 아이들의 부모만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 하게 되면 부모가 예배에 함께 없는 아이들은 왜 우리 엄마는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총신교회 탐방 후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나림 교사

저도 가정예배 부분이 좋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부모이고 더 나아가서 엄마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전부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예배가 드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총신교회에서 이것이 중요하니 무조건 드러라가 아니라 가정예배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여러 가지 틀을 알려주면서 잘 독려해 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담임목사님과 교육총괄목사님, 교육부서교사의 비전이 서로 공유가 되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도 비전이 공유가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뭔가 하라는 상명하달식이 아닌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알려주고 가이드 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장지혜 교사

확실히 세대로 교회보다 교육 자료는 총신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료들이 너무 좋고 연령별로 스타일과 유형을 잘 맞춰서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성도나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특별히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총신교회는 교회라기보다 교육기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 같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운영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운영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왠지 학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맞습니다.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교회들이 느끼는 문제 즉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과 교육부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현상에 대해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신앙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교육에 포커스를 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준비하고 방문했던 목적이 교육부에 대한 것 이었고 총신교회에서는 교육총괄 이도복 목사님을 뵈게 된 것 이기 때문에 총신교회가 교회로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탐방한 시각으로 단정 짓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 하는 것은 추 후 우리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 할 때 교회의 균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윤정 교사

교회를 탐방하면서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놓고 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들이 30, 40 대의 중요성과 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정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연계가 중요 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지난 세미나 때에도 강사 분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다가 다음세대 위원회를 하고 나서 다음세대가 중요 하구나 그중에서도 엄마가 아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크게 준다고 하니 제 자신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신앙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어야하는지를 생각 하게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모세대가 교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분들의 아이들이 중점입니다. 교회봉사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아이들은 잘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일반 가정은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듣는 것에 만족하고 교회 안에 있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끼리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준비해서 제공 할 때 그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서는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전도사

맞습니다 30, 40 부모님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전문성도 갖추고 이분들의 필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정 교사

교회와 성도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만들어야합니다. 교구 임원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소통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넓혀서 제공해야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이 잘 안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충신교회 프로그램 느낌, 우리교회의 적용 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먼저 성도님들께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연령대를 고려하고 신앙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되어지고 상호 교류하면서 맞춰가야 합니다. 좋은 것 이라고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도 주일에는 바쁘죠.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것이 많이 없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직자로 부터 담임목사님, 교역자가 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중심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가지 행사를 잘라야합니다.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주듯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시급하고 꼭해야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나림 교사:

충신교회가 가정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삶공동체이죠.

충신에서 가정예배를 위해 많은 교보재를 개발하고 제공 하듯이 우리가 말씀삶공동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말씀 목상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목상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는 목상도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지혜 교사: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긴 해도 깊이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이미지를 변화시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멘토처럼 다가가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품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교역자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고 구역장님을 잘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우 해주시고 많이 살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이러한 구역장님들이 많이 생기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들이 잘 품어 주신 분들이 또다시 좋은 구역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윤정 교사

동소훈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장지혜 교사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구성원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그룹 구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묵상을 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대로교회 탐방 보고서

■ 세대로교회 탐방

- 일 시 : 2023년 5월 11일 1시20분 ~ 3시20분
- 장 소 : 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25 / 예배: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11 배명고등학교



<세대로교회>



<교육 디렉터 서은선 전도사>

1. 세대통합예배

1) 세대통합예배의 계기와 구성

- 세대 통합예배는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서는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필요에 의해 생겨진 것이지만 전에는 부모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렸었다. 예배의 원형은 통합예배이다.
- 교육부서 예배를 하며 자라 온 아이들이 청, 장년 공동체 예배를 하는 시점에서 적응 하지 못하고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부서가 바뀔 때 떠나는 아이들이 잘 적응하며 연계 되도록 하는 것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이 이어지도록 믿음의 교육생 태계를 제공하여 청, 장년 예배공동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 신앙은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함으로 배우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공동체 안에서 배우도록 한다. 또한 아이들에 대해 공동체 함께 양육한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알아봐 주고 인사와 격려를 한다.)

2) 청소년 세대통합 예배

청소년과 부모의 통합예배는 9시부터 시작하는 1부 예배를 한다.
통합예배를 위해 부모, 교사, 학생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 2020년에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결국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부모와 함께 1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분반공부 및 활동을 하고 10분 정도 모여서 찬양을 한 후 당일 말씀 메시지를 3분으로 랩업(Wrap-up)을 한다. (11시 25분정도 마침)

3) 어린이 세대통합 예배 (오렌지 예배)

11시에 드리는 2부 예배 때 부모와 함께 예배한다.

영아, 유아부는 부서에서 모이고 유치, 유년, 초등부는 부모와 함께 강단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 설교 전에 10분 정도 어린이 설교를 듣고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퇴장하여 부서 2부 활동을 하게 된다.

[오렌지예배 자료#1]

	<p>[전세대가 함께 부르는 찬양팀] 찬양시간에 온 세대 통합 찬양팀이 찬양을 부른다. 다음세대 아이들은 단체복을 입고 찬양을 하며 선곡은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한다.</p>
	<p>[다음세대설교] 대표 기도가 끝나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교육부 교역자가 10분정도 설교를 한다.</p>
	<p>[다음세대 축복] 다음세대 설교가 끝나면 각 부서로 흩어져 2부활동을 하는데 강단에서 뒤로 퇴장할 때 어른들은 모두가 축복의 찬양을 불러 준다.</p>

※ 예배를 부모와 함께 드린 후 기존 부서 활동 했던 것을 하게 된다.

4) 온가족 예배

기존에 드려 왔던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예배하는 절기 예배 형식을 한다.

청년 예배가 주일 오후 1시30분에 청년부 예배가 있지만 대예배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1, 2부 예배가 대 예배이고 1시 30분 예배는 부서 모임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그렇게 때문에 청년들에게 1, 2부 예배를 나오도록 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청년부 예배만 드리는 아이들도 많아진 것 같다.

5) 통합예배 진행의 어려운 점 및 장점

발달연령에 맞는 신앙 교육을 아이들이 받아야 한다고 믿는 학부모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 실제로 싱글인 분들은 가족 중심이고 가정적인 분위기의 교회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세대로 교회는 가족 중심 목회의 철학과 방향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공과를 파이디온 에서 나온 '예수 빌리지'라는 책을 사용한다. 담임목사님이 이 교제의 순서를 따라 설교를 하시고 전 세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하므로 아이들과 부모와 말씀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말씀 통합이 된다.

6) 세대로교회 예배의 특징

	<p>[가족헌금봉헌] 헌금봉헌 시간에는 헌금위원이 한 가족이 된다. 가족이 나오게 되면 성도들이 그 가족을 보면서 가족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p>
	<p>[아버이날 축하] 예배에서 어른들의 특별 순서(취임식, 아버지날)는 아이들이 2부 활동으로 흠어지기 전에 순서를 넣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예배에 익숙해지도록 한다.</p>

2. 세대로교회 프로그램

1) 부모와 연계하는 교육

부서에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유아, 유치부 60일 성경읽기를 통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 주며 교회와 부모, 아이가 연계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유년, 초등은 릿워렌 40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진행함.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묵상을 진행한다.

2) 비전스쿨 / 드림스쿨

①어린이 말씀묵상 학교 (비전스쿨) / 9시 1부 예배에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들을 위해 운영. 평일에 매일성경으로 묵상을 한 후 비전스쿨에서 묵상한 것을 확인한다. 매번 묵상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도 한다. 또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초청을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섬김의 모습들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주차봉사, 식당봉사 팀장님이 교회봉사를 소개하거나 여러 직업군의 전문가를 통해 듣기도 한다.

②드림스쿨

스쿨을 하게 된 계기는 기능적으로는 9시 1부 예배 때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들이 오는데 이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고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 시작이 된 것이다. 드림 스쿨은 섬김이 자녀들 12개월~ 6세까지 대상이다. 성경 동화도 읽어 주고 신체 놀이도 하며 간식 등을 주며 진행한다. 90%정도는 고정된 아이들이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아이들 말씀묵상 하는 것이 좋아서 참여하기도 한다.

3) 새아가 축복을 통해 양육의 통합을 선포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축복한다.
"이 아이는 A 집사님께 주신 아이일 뿐만 아니라 세대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과정을 봐주시고 잘 양육되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성도들 앞에서 선포한다.

4) 세대로 클럽 KFC(King's Family Club)

통합 주일예배에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스토리 방, 암송 방, 게임 방, 만들기 방...) 각 방마다 사역자들이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여름, 겨울 성경학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2월 방학에 시작하여 학기 중에는 학업과 겹치는 부담을 덜어준다. 5년 정도 진행했으나 사역자들의 사역지 이동에 따라 운영 방법도 다르게 하고 있다.

5) 예수제자 방학캠프 (초등학교 2학년~5학년) 대상 80명 중 20명

[겨울방학 캠프]

2023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방학 때 부모의 맞벌이로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 교회공동체가 지지해주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기 위함이다.

운영은 아침 9시~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을 주고 방학 캠프로 4주를 운영하였다. 일주일에 1회는 야외 활동으로 양화진, 스키, 키자니아, 직업체험, 롯데월드 활동 체험을 위주로 하고 경제활동을 가르치기 위해 조별로 일정 금액을 주고 식사를 하게 하였다.

재정은 1인 50만 원

<내용>

메인 성경 말씀은 어린이 신나는 탐험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초등학교 저학년은 책 놀이, 초등학교 고학년은 세계관 교육을 매일 넣는다.
그밖에 자기 발표, 글짓기, 학원과제

[여름방학캠프]

이번 여름 제자 방학 캠프는 8월 3박4일 파이디온 성경학교 주제인 '믿음의 사람'을 따라 국내 믿음의 사람(손양원 문준경..)을 찾아서 떠난다.

방학 캠프를 통해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주고 믿음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간다. 아이들도 방학 때 놀고 게임도 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한다.

■ 2022년 여름캠프



3. 세대로교회 안내

1) 오렌지 카드, 말씀 카드

오렌지 카드
주제 용두사미 인성이 되지 않으려면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겸손과 순종을 보이라(삼상15:17-23)
요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15:22b)

2023. 4. 23.

일어날 때 연애했 때

“오늘도 왕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께 순종하며 살렘.”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00아,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제 아이가 하나님께 겸손하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렌지 대화

오렌지 가정 예배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들이 잘 아는 찬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00이는 예배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7-23절 말씀을 읽고 아래의 내용으로 대화해 주세요.)
“00아, 함께 설교 영상을 볼까?”
 (함께 하늘기록 밴드나 유튜브에 있는 오렌지 설교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아래의 내용과 질문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아래에 질문과 []안에 제시된 답들은 참고용입니다. 질문을 하신 후 먼저 아이의 대답을 들은 후에 제시된 답을 사용해주세요.)
“00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 다른 나라는 인간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했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어.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겸손하게 시작했어. 하지만 그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했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했어.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 놓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음을 보였어.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뜻을 정하셨어.
00아, 시작한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울의 삶에서 우리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을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고(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순종)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보이며 사는 거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겸손하고 절대 순종하며 살아 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자.”
“사무엘상 15장 22b절 말씀을 자녀들에게 여러 번 읽어 주거나 함께 암송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들이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좋아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놀여 주시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절대 겸손함과 절대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여 주신답니다.]
 (자녀의 대답을 먼저 들어 주시고 부모들도 답을 하면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00이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도와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니?”
 (대화와 부모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가족집회 책임들 나누어지게 해주세요. 믿음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가족이 함께 선행하기
온가족이 함께 가까운 중원이나 산책로에 가서 산책을 하며 사진도 찍고 맛난 간식으로 시막으면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창립 2002년 10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대로교회

Transgenerational Mission Church

2023. 4. 23

“끝이 시작보다 좋은 인생”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책

말씀카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사무엘상 15:22b)

섬김이들

담임 목사 양승현
 은퇴장로 신성문, 이항주, 임인철, 강영구
 사역장로 안경원, 송현종, 이재신, 이규환, 문무달
 목 사 강주상, 김상기, 김지태
 교육디렉터 서운선
 할동 목사 김대래, 정홍호
 전도사 전혜란, 이재은, 최충준, 임영란, 김학주
 간사 김해경(행정), 김정용(관리)

찾아오시는 길

배명고 05598 서울시 송파구 상학사로11
 아브네홀 05691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5
 전 화 02)414-3100
 홈페이지 www.sedaero.org
 길 안내 지하철 9호선 석촌교보역 4번출구
 • 배명고 : 3315, 3417, 3322, 3422번 버스
 배명고등학교 정류장 하차
 • 아브네홀 : 3417, 3322, 3422번 버스
 남원교회 정류장 하차

www.sedaero.org

■ 오렌지 카드 사용방법
가정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참고하며 오렌지 카드로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말을 해준다.

■ 말씀카드 사용방법
주보 1면에 명암 크기의 말씀이 붙어 있다. 말씀 카드를 떼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며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한다.

2) 교회 예배, 모임, 특별부서 안내

예배 시간 안내

예배	주일 1부	주일 오전 9:00	비전홀(1F)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비전홀(1F)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	1두란노홀(B1)

기도회	새벽기도회	월~금 아침 5:30	아브네홀(B)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1두란노홀(B1)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9호선 석촌교본역 4번출구 도보 5분
- 지하철 2, 8호선 잠실역 5번출구에서 3315번 버스
-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출구에서 3417, 3418, 3422번 버스
- 지하철 8호선 송파역 1번출구에서 3418번 버스

모임 안내

태아부	태아 및 부모 토요일 오전 10:30 1두란노홀
영아부	출생 ~ 12개월 주일 오전 9:00, 11:00 한나홀(2F)
유아부	13개월 ~ 4세 주일 오전 11:00 디모데홀(2F)
유치부	5세 ~ 7세 주일 오전 11:00 아베스홀(B1)
유년부	초등 1 ~ 3학년 주일 오전 11:00 1두란노홀(B1)
초등부	초등 4 ~ 6학년 주일 오전 11:00 2두란노홀(B1)
중등부	중1 ~ 중3 주일 오전 9:00 1두란노홀(B1)
고등부	고1 ~ 고3 주일 오전 9:00 2두란노홀(B1)
청년 1부	고교 졸업후 ~ 27세 주일 오후 1:30 아브네홀B
청년 2부	28세 ~ 결혼전 주일 오후 1:30 아브네홀5
새가정부	결혼 5년 이하 부부 주일 오후 1:20 디모데홀(2F)
실버스쿨	70세 이상 어르신 주일 오후 1:30 다목적실

특별 부서

드림스쿨
13개월 ~ 6세 주일 오전 9:00 | 디모데홀(2F)
섬김이 자녀들을 돌보는 신나는 놀이 마당

비전스쿨
7세 ~ 초등 6학년 주일 오전 9:00 | 아베스홀(B1)
섬김이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 큐티 학교

리더스쿨
중1 ~ 고3 주일 오전 11:00 | 아브네홀B
청소년 신앙양육과 돌봄 및 교제의 마당

아기학교
18개월 ~ 36개월 목요일 오전 10:00 | 아브네홀6
부모와 유아가 함께 활동을 통해 친밀해지는 과정

어와나 AWANA
7세 ~ 초등 6학년 수요일 오후 7:00 | 비전홀(1F)
게임과 말씀 암송을 통한 하나님의 리더 훈련

올리브찬양/위키팀
초등 1~6학년 주일 오후 1:30 | 아베스홀(B1)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른 예배자를 세우는 훈련

세대로클럽(KFC)
초등 3~6학년 토요일 오전 10:00 | 2두란노홀(B1)
영적 왕족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과정

장년양육

001 생명반	기초 양육, 세례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
101 회원교인	세대로교회 회원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
201 성장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필수 과정
301 제자훈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고급 과정
401 사역훈련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고급 과정

■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사무실 건물은 별도로 있는 상태이다

다음 세대를 부모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양육하는 마음 자세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믿음의 관계를 위한 오렌지 카드와 같은 장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가정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두 번째 탐방을 마치며 세대 통합과 믿음의 가정을 위한 교회와 가정의 연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4. [TEAM FEEDBACK]

노길호 장로

1, 2차 교회 탐방은 통합예배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선전도사

통합예배의 본질은 교육부 아이들이 줄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학부모가 예배에 참여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예배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노길호장로

우리교회 예배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드릴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이 대부분 어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세대로 교회는 통합예배 시간에 담당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맞습니다. 세대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담당 교역자가 5~10분정도 말씀을 전한 후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퇴장을 하고 2부 순서를 아이들이 갖도록 합니다.

노길호 장로: 그것이 세대통합예배라고 볼 수 있죠?

김기선 전도사: 그것이 세대통합예배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길호 장로:

우리교회도 이러한 세대통합예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방 다녀온 결과를 책자로 만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담임목사님께서 실천 하실 건가요?

김기선 전도사:

책을 만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다녀와서 우리가 좋고 나쁜 점을 기록하게 되면 다음에 또다시 이와 비슷한 일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고 자료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또한 좋은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진행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대로 교회에 대해 잊고 지내셨을 것 같아서 일단 자료 검토를 한 후에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호 장로:

아이들이 부서 진급 할 때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 교사들이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

김기선 전도사: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대로 교회에서 통합예배를 드리게 된 목적에 대한 설명된 부분입니다. 즉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지나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가 되면 예배 출석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통합예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통합예배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장년예배를 미리 경험하므로 낯설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1시간 내내 함께 드리면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아이들 입장과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행사부분을 처음 예배 부분에 배치하여 아이들이 예배

를 경험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길호 장로:

아이들이 부서로 올라올 때 반가운 환영식을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저는 세대로 교회를 다녀와서 좋았던 부분은 방학캠프를 하는 것 입니다.

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들이 큰 고민입니다. 물론 학원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원을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아니어서 돌봄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를 떠나서 교회 아이들 양육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부모에게 생각을 하게하고 교회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 또한 학업과 야외 활동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지혜교사:

저도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방학캠프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세대로 교회는 제2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있지만 큰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을 따듯하게 품어 주려 하고 큰 가정으로서 부모와 함께 고민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고민하고 적용해 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신교회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충신교회는 최종적으로 큰 혜택을 주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충신교회는 좀 권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대로 교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 게 라는 입장을 취하며 부모로서의 교회 입장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합니다.

정나림 교사:

비전스쿨과 드림스쿨과 같이 교회봉사를 위해 일찍 오시는 분들에 대해 아이들을 말씀묵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봉사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가 아니 때문에 아이들을 잘 케어 하기 힘들고 함께 온 부부 중에 아이를 돌보는 역할이 잘되면 봉사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세대로 교회는 이러한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세대로 교회처럼 말씀으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갖춰지면 어떨까합니다.

김기선 전도사 : 맞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봉사를 할 수 없다보니 아이가 다 자랄 때 까지 못하게 되죠.

정나림 교사 :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봉사를 보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지혜 교사 :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보류 하게 되죠

노길호 장로

성도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실 가장 앞쪽에 앉혀놓고 담임목사님이 잠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하시거나 부서담당 교역자가 설교를 하거나 해서 성도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세대로 교회가 통합 예배드리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현재 우리교회 예배는 교육부서와 2부예배가 동일하게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에 장년층에서 교육부서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죠. 네~ 세대로 교회는 헌금봉헌 할 때 일가족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가족인지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윤정 교사

세대로 교회 통합예배와 우리교회의 온가족 예배를 비교했을 때 세대로 교회 영상을 보면 온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린이에 맞춰서 찬양선곡을 하고 찬양 팀을 구성시키고 어린이가 대표기도를 하고 찬양인도자가 멜빵바지를 입고 가벼운 복장으로 가족예배를 참여 하는 것에 비해 우리 교회는 예배내용이나 진행 등 너무 장년중심의 설교와 예배 형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 하고 시선이 분산되고 그러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일 떠드는 것 때문에 “왜? 이 아이들을 교사들이 통제하지 못하냐”는 불만을 품게 되고 교사들은 우리도 오늘은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교사에게 온가족 예배 때 아이들을 돌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한 장소에 모셔서 드리는 예배가 온가족 예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린 아이들을 불렀으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길호 장로

이번에 5월 5일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날 온가족 예배를 진행 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린이 관련 부분은 전혀 없고 동네세메줄 관련 부분만 있다 보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박윤정 교사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습니다.

노길호 장로

어린이 온가족 예배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 수료식은 다른 날 했어도 됩니다.

박윤정 교사

수료식은 차라리 아버지 주일에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노길호 장로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맞게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나림 교사:

그래도 이번에는 아이들 찬양 팀도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좋았긴 했어요.

김기선 전도사

네 온가족 예배라고 하면 온가족이 참여하고 아이들에 맞게 예배를 디자인 해달라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지혜 교사

저는 세대로교회 탐방에서 방학캠프가 부러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보낼 겁니다. 우리교회가 세대로 교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교회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세대로교회에서는 통합예배형식 때문에 일반 교회학교의 2부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여름캠프를 진행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지혜 교사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경으로만 신앙교육을 시키기보다 국내 순교성지탐방과 같은 방학프로그램을 하게되면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기선 전도사

아이들에게 성경말씀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 및 청각적인 부분들 다양하게 체험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노길호 장로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려면 재정이 따라줘야 합니다. 재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입니다.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신앙적으로 느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재정이 중요합니다. 현재도 재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 재정이 확보되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 전도사

좋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이 잘 세워지고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대로교회 탐방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향남교회 탐방 보고서

■ 예수향남교회 탐방

- 일 시 : 2023년 6월 28일 1시20분 ~ 3시20분
- 장 소 : 예수향남교회 (교파: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255번지



<예수 향남교회>



<교육 디렉터 손하람 목사>

■ 말씀묵상 중심교회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담임목사는 말씀묵상을 목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심방을 할 때도 그 가정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닌 그날의 본문말씀을 전하여 말씀이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조명해 주시길 믿고 전한다.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말씀하실 경 목사본문 어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지 언급을 해주신다. 그로인하여 묵상한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연결점을 생각하도록 한다.

1. 교회

1) 통합예배의 배경과 진행상황

- 코로나 시기에 부모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1달에 1회 전 세대가 통합예배와 가정의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교육부 사역자들이 부서사역과 겹치면서 매우 힘들게 여겼고 중, 고등부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몹시 힘들게 여겨서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 결과적으로 명절이나 어린이주일 또는 성탄주일에만 통합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기존 예배 형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이들이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아이들이 장년예배의 무게감 등 적응하기 쉽지 않았고 옛날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함께 예배드렸다는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하셨지만 힘들어 하는 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을 넘기 어려웠다.
- 동탄지역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통합예배가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충분히 동의가 된 상태에서 그러한 가정들만 모여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인원은 50~60명이고 어린이 청소년 합쳐서 30명 정도 된다.

2) 교회부흥의 중심 30, 40대를 주목!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이다. 다른 주요 이유를 든다면 30-40대이다. 그들이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오는데 이들이 오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오게 되고 교육부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 오게 된다. 이 지역은 근처에 제약단지등 직장으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가 30-40대를 이루고 있는 특혜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3년 정도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는 비율도 높다. 때문에 로컬로 자라면서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은 15~20%정도가 된다. 30-40대가 자신들의 관심과 공감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고 있다. 요즘은 전통적인 교구에 들어가게 되면 연령 차등으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소그룹이 필요하다.

2. 교회 밖 사역 “ 드림청 ”

1) 드림청(법인) 지역사회 복음전도 사역

청소년 사역으로 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모임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바깥 공간에서 공간(카페)을 만들어줘서 아이들끼리 어떤 교회와 관련된 연관 연계성을 갖는 사역하고 있고 어린이사역(새소식반)은 공원에서 복음 전도한다.

예수향남교회라는 이름을 아예 안 걸고 사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역교회랑 연결해서 장소도 지역교회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새 소식반 진행 하고 학교 앞 전도하고, 공원 전도 등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음.

2) 드림청 선교재정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사가 하더라도 교육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선교팀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도 선교팀에서 받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사업하는 장로님이 컵라면을 계속 공급 하고 교회 재정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런데서 힘을 받게 된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위해 드림청을 법인으로 만들게 되었다.

3) 운 영

• 교회카페 컵라면사역 / 청소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사역이고 금요일마다 교회 상가 2 층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며 학원 시간 중간 시간대에 무료로 컵라면을 제공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피자, 치킨, 레크리에이션을 한다. 이러한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하기가 예전같지 않다. 대안학교 때문에 교회 건물도 이전을 했다 (주택 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

• 새소식반 / 어린이 공원전도

공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다. 주로 토요일에 인근 공원에서 전도지도 나눠주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이들이 결신하게 되면 근처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권면 한다.

■ 드림청 청소년 사역



3. 교육부

교회 학교 교사는 150명 정도이다. 사역 부서는 9개 부서고 그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부서가 7개 부서고 어와나(Awana)랑 그다음에 탁아부 까지 해서 총 9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다. 선생님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이 줄었다.

1) 교사 모집

우리교회는 30-40대가 많은데 아이들이 어려서 봉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기 교사 지원제도가 있다.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단기 교사 지원을 모집하고 봉사하도록 하면 행사가 끝나더라도 10%정도 봉사자들은 정교사를 하게 된다. 청년들이 교육부 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부 여름 사역은 교육부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된다.

2) 교육

교육부는 전교인이 묵상하고 있는 묵상 책 "큐티인"으로 전 부서가 전통적인 공과를 하지 말고 묵상말씀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도록 지침을 하셨다. 하지만 영아부서가 특히 더욱 어려움을 겪다보니 지금은 전통적인 공과를 사용하기도 한다.

3) 교회에서 가정으로 연계사역

교회학교에서 저희 가정과 연계된 사역들을 어릴수록 많고 코로나 때 많이 했다. 그래서 매주 **패밀리 타임**이라고 해서, 어린이 미취학이랑 어린이 부서는 매주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 주고 말씀암송 하는 것을 한다.

4) 라이트 프로젝트 (세상의 빛과소금)

매일 말씀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이런 어떤 경건 훈련들이 내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걸 이제 매번 매 주마다 가정에서 스탬프 찍어서 오면 그거를 스탬프 북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주말에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아이들을 뭐 100명이 모은 스탬프는 뭐 이 한 장당 10원씩 해서 얼마가 됐고 이 돈으로 펀드레이징해서 외국 친구들을 돕는다. 어른예배때 광고를 해서 성도들이 후원을 한다.

5) 교육부 예산

교육부 1년 예산이 1억 2천 정도이고 작년에 예산으로 저희 1억 1천 정도를 썼다. 코로나 때 담임 목사가 계획 없이 가자! 예산 계획 없이 가자라고 선포하셔서 당회 전에 경상비를 청구해서 승인받은 것만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정말 불편했고 담당 재정담당 장로님의 이해가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재정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과정중에 있다. 교육부 여름 행사와 같이 큰 행사비용은 교회 기관에서 후원을 받기도 하고 펀딩을 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4. 기독대안학교

기독교학교를 목사가 처음에 설립하신 취지가 학부모님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요청 과 담임 목사님 지인 목사님께서 기독교학교를 운영하신 부분과 주중에 교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교육철학은 말씀 위에 균형 잡힌 예수님의 사랑이다. 대안학교를 2012년부터 시작해서 약10년 정도 되었다. 1학년으로 입학했던 친구는 지금 고3이다. 시작은 통합학급으로 운영했고 이 후 인원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을 별개로 운영한다.

■ 초등과정

	<p>[조약돌 다섯 개] 말씀으로 사는 사람 / 조화로운 실력 / 섬기는 리더십 정직한 소통/ 건강한 몸과 마음</p>
	<p>[신앙교육] 매일아침 말씀묵상 성품교육 / 기독교 선교 유적지 견학 학부모기도회 / 어와나 / 말씀암송인증</p>

■ 중, 고등부

	<p>[조약돌 다섯 개] 말씀으로 사는 사람 / 조화로운 실력 / 섬기는 리더십 정직한 소통/ 건강한 몸과 마음</p>
	<p>[신앙교육] 1년 1회 통독으로 성경의 큰 그림 그리기 매일아침 말씀묵상과 정독으로 삶에 적용 잠언 속 단어들을 통한 한문 학습 주제별 토론 및 학습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p>
	<p>[악기 /독서인증제] 찬양 사역의 기본이 되는 어쿠스틱 기타를 배움. 중등 과정 3년간 100권, 고등 과정 3년간 50권을 완독</p>

1) 기독교대안학교 조직구성 및 운영

초등으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이 시작됐었고 중등은 한 4년을 시작해서 한 7,8년 차에 통합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쪽 이어오고 있다.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 겸 총괄교장을 하시고 이하 부장체제로 운영한다. (초등부장, 중고등 부장) 이전에 부장은 초등교장, 중고등 교장이었다. 교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현재 교육부 목회자들이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학교와 대안기독교학교는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교사채용

대안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대안교육에 대한 이미지나 철학이 각기 다르고 각자 가지고 온 철학을 와서 펼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독교 철학과 오시는 분들과 너무 다른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걸러도 잘 안 된다. 면접 때는 다 동의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철학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

초등은 초등교원 자격증 가지신 분이 오기는 어렵다. 대부분 소명의식이나 독서지도자격과 같은 분야별로 학교에 필요에 의한 부분이 충족되는 분들이 오신다.

중등 교사는 중등교원 자격증 2급을 가지신분들을 공개 채용한다. 현재 계신분들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다.

3)기독교대한학교 아이들

기독교대안학교 학생 90프로가 교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와 교회학교의 학생은 같다 하지만 학교는 주중 사역이고 교회는 주말 사역이다 보니 사역은 좀 다르다. 기독교학교 친구들은 주중의 훈련을 받는 친구들이니까. 교회 학교에서 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로 좀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좀 몸에 배인 걸 가지고 주말에 교회에서 거의 사역하는 정도로 찬양팀이든 어떤 다른 부서 보조교사라든지 활동을 한다. 물론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다.

4) 행정사항

대안학교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아이들이다. 학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셔야 하고 또 이제 또 기독교적 가치관도 있으셔야 하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역량이 되시는 섬길 수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이다.

○ 비용

발전기금 500만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입학금은 200만원 교육비는 매달 한 70만 원 정도 들고 기숙사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입학조건

입학할 때 책 드리고 독후감 쓰셔서 두 권의 독후감을 내셔야 되고 매월 정기모임 참석하셔야 되고 학부모 기도회 참석하셔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됨.

(현재는 독후감은 제출하지 않고 중고등학생은 필요에 따라 정서적 상태 검사 요청됨)

○ 초기운영의 어려운 점

초기에는 전국에서 아이들이 와서 기숙이나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렇다보니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문제가 발생되어 입학 절차를 강화 하게 되었음. 현재는 유연성 있게 운영.

○ 대학입시

담임목사님은 입시에 대해 포기하도록 학부모에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편이다. 물론 대학 가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입시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입시도 중요하게 생각함.

5. [TEAM FEEDBACK]

김기선 전도사

예수향남교회는 대안학교와 국내선교 및 코로나 이후 세대를 이어가는 예배를 위해 통합예배등등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 부분에 대해 실험적으로 먼저 해본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민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림청 이라는 법인을 세워서 청소년들에게 교회 공간을 이용하여 라면을 제공하면서 교회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복음 전도는 공원에서 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하고 결신하는 경우 인근 교회에 출석하도록 돕습니다. 통합예배는 코로나 이후 믿음의 계승을 하는데 있어서 제시되었던 예배모델중에 하나인데 현재 예수향남교회에서는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견되어 현재는 전통적인 예배를 하고 통합예배는 명절 또는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나림 교사:

우리교회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예수향남교회 드림청 처럼 교회 2층 카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학원은 없지만 요즘 스터디카페를 중, 고등학생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평일에 스터디 카페식으로 공부도 하고 라면도 먹을 수 있도록 저녁 9시까지 개방을 해놓는 것으로도 지역학생들을 교회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2층 카페 활용과 향림공원에 풋살장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행사를 기획해도 좋겠다고 제안하신 전도사님 말씀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유성민 교사:

예수향남교회는 30, 40대를 중점으로 두는데 아이들은 결국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30,40대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현실적으로 교회가 책임지기에는 부모의 영향 보단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선 전도사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윤정 교사

라이트 프로젝트에서는 달란트 개념으로 아이들이 매일 말씀묵상과 큐티, 기도 등을 하며 매주 스템프 활동을 통해 연말 돈으로 환산하여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펀딩레이징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5천만원 이상 뱃지를 주고 아이들이 본인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알고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는 성경적 활동에 의미와 동기부여하며, 후원 및 선교활동에 관심과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됩니다.

장지혜 교사

일단 많은 사역들을 시도하시며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을 텐데 지역과 아이들의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감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뿌듯합니다. 전도해서 우리교회 교인 늘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지역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향남교회는 사역마다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타 교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카페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라면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교회 공간을 오픈하여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접착점을 갖게 하는 것이 아주 좋아 보여요.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아직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입시가 다가 아니라는 목사님의 말씀에는 100번 동의하지만 아이들이 결국 사회에 나가 적응하며 살아야 하고 교회와 사회와의 차이에서 발생할 만한 문제들을 예상하시고 해결 방법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집니다.

김기선 전도사

교회가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1학년으로 입학했던 아이가 이제 고3 이라는 것이죠, 3학년으로 들어왔던 친구는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입시를 목적으로 하면 대안학교가 일반 학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략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과 과정 커리큘럼에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는 것이 학습목표에 들어있기도 하구요.

박윤정 교사

가정의 힘! 3~40대 부모가 자녀 신앙의 주체가 된다.

부모를 세워야 한다는 철학으로 3~40대 부모 중심의 말씀 전달과 맞춤형 소그룹 형성을 통해 자녀들의 교회 유입과 출석률을 높이며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으로 큐티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그 가치와 방향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나림 교사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위해 단기 교사 모집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또는 부서 행사가 있을 때 일부러 청년들을 초대해서 교사로 섬기는 것을 경험시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원하라고 하면 그 부서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단기교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사에게는 부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원한 교사에게는 그 부서가 나와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윤정 교사

교사 모집 부분에 있어서도 1년에 1번 교사 위로회를 하고 사은회를 지원하며 여름성경학교를 할 때 교사 간 서로 품앗이를 통해 부족한 인력에 대해 협동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와 같은 행사를 할 때 단기교사 신청을 받아서 활동하며 단기교사 중 10% 정도가 정교사로 남게 되는 부분도 아주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나림 교사

제가 공감 되었던 부분은 통합예배를 부모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드려야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온가족 기도회의 경우, 아이들이 떠들거나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다른 성도님들의 눈치가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조용히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했기에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예배가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통합예배를 드려야 아이를 데리고 온 가정도, 아이가 없는 가정도 열린 마음으로 예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 한 가지 문제점은 초등학교 시기는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교과 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인성지도, 기독교적 가치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가 중요하며 이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담임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향남교회 대안학교의 경우, 초등은 초등학교 원자격을 가지신 분이 오기 어려워 대부분 소명의식이 있거나 독서지도자격과 같은 분야별로 학교의 필요에 의해 충족되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남서울은혜교회 탐방 보고서

■ 남서울은혜교회 탐방

- 일 시 : 2023년 8월 29일 1시20분 ~ 3시20분
- 장 소 : 남서울은혜교회 (교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강남구 일원로90 밀알학교 그레이스홀



<남서울은혜교회>



<교육 디렉터 류창주 목사>

- 남서울 은혜교회는 주일예배, 소그룹 사역, 매일성경묵상을 중심으로 23개 위원회의 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를 추구한다. 그밖에 복음전파사역과 장애인, 통일선교를 통해 하나님말씀을 사회 소외계층의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일에 실천하고 있다. 1995년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박완철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코로나 이후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가 제자리를 찾는 회복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1. 교육부

1) 예배 (파이디온)

남서울 은혜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파이디온을 사용한다. 그렇다 보니 예배가 매우 역동적이고 파이디온 본부장이 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신다. 파이디온의 찬양과 말씀등 여러 가지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출석률이 거의 모두 회복되었다.

■ 초등부 파이디온 찬양



<남서울은혜교회 초등부 파이디온 찬양>

2) 말씀양육 어와나 (Awana)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영어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어와나의 시상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성취를 자극한다. 게임을 잘하는 아이는 게임에서, 암송을 잘하는 아이는 핸드북에서 각각 독특하고 특별한 인정을 받게 하여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어와나는 핸드북을 통해 얻는 상 즉, 성경공부상을 가장 큰 상으로 수여하고 격려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말씀을 배우고 재미도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교회를 선택할 때 어와나가 있는지 묻는 학부모도 있다. 교육부서 중 하나처럼 어와나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

시간은 오후 2시30분~오후4시30분까지 운영되어 그 시간에 목장 모임 및 여러 봉사와 섬김을 학부모들이 할 수가 있어 매우 좋다. 선생님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너무 어와나를 하는 아이들 끼리 친하게 되어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경을 써야한다.

■ 어와나 (Awana)



<남서울 은혜교회 Awana>

<남서울 은혜교회 Awana>

3) 원 플러스 원 사역

사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역자는 원 플러스 원 사역으로 본인이 주로 하는 사역과 더불어 부로 맡아서 하는 사역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아동 부 전도사를 하면서 오후에 어와나를 담당한다거나 유년 부를 하면서 어린이 전도폭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중. 고등부 학생 출석

중등부는 잘 나오는데 고등부에 올라가면 특히 시험기간에 거의 50%정도 줄게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고등부 아이들에게 음료를 들고 학원 앞에서 심방하고 토요일은 아이들 집 앞에서 심방을 한다. 또한 학부모님들과 매주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부 아이들에게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앞 심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5) 교사

○ 학부모교사 (교사충원)

어린 아이들이 교육부에 있을 때 부모가 함께 예배를 참여하다가 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잘 자라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부모는 원래 있던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많게 되고 교사에 대한 간접 경험을 시켜 줄 수가 있다.

○ 중, 고등부, 청년 (교사충원)

교육부 행사가 있을 때 중고등, 청년부에서 참여하여 보조교사로 섬기도록 한다. 중, 고등학생도 미취학 또는 저학년 행사에 참여하여 도울 수 있다. 추후 청년이 되면 교육부서 교사로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

○ 교사 순환제도

남서울은혜교회 사역자가 어떻게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주 부장, 부감 제도가 탄탄합니다. 훨씬 되게 부서에 이게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제 오히려 큰 지금 오래 하시는 분들 때문에 부서가 이렇게 크게 줄지도 않고 체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었다.

어떤 교회는 장기근속 교사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하신 분들은 권면해서 부서를 옮긴다. 오래계신 분들이 모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 순환제를 도입 하게 되면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곤란에 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6) 청년부 재수생예배 “요셉부”

청년부에서 재수생은 교회에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재수생 부서인 청년 요셉부를 만들어 오전에 예배를 한다. 간절한 마음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시기를 서로 의지하며 힘이되어 잘지내고 신앙생활도 하게 된다. 이렇게 요셉부를 거쳐간 청년은 또다시 그 부서를 섬기는 청년이 되어 후배 재수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 재수생예배 청년요셉부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요셉부>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요셉부>

2. 교회

1) 찾아오는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를 가진 또는 장애인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강남구 일원동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 되어 예배처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특징과 환경으로 요즘처럼 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다만 봉사를 하는 분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성도를 찾아 해매기보다 성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에 공감하고 참여하게 된다.

2) 30-40대 성도 젊은 부부모임

30-40대 젊은 부부모임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교구에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올라가기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이 제한을 40세로 두어서 젊은 부부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교구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기 싫어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되고 있는 젊은 부부모임에서 올려 보내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 젊은부부모임



<남서울은혜교회 젊은부부모임>



<젊은부부 목장모임>

3) 생활 훈련학교

홍정길 원로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강조도 하고, 했는데, 성도들의 삶이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해결을 위해서 생활훈련학교를 세팅을 해 놓으셨던 것이다. 말씀 공부한 것이 이제 가정에서 실천되어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 태교학교와 애착부모학교, 아동기학교, 사춘기 자녀학교, 청년기, 평생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전 생애에 걸쳐 우리 삶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훈련생을 모집을 해서 전문 강사들이 있어서 이론적인 것과 본인 경험담 숙제를 내준다 집에 가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루에 한 번씩 안아줘라 이런 숙제들이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반응은 이제 대체적으로 좋았고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교육을 통해 조금만 방향을 알려줘도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개선될 때가 많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삶이 변화 되기보다 전문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 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 생활훈련학교



<남서울은혜교회 결혼예비학교>



<남서울은혜교회 청년기 부모학교>

4) 말씀묵상

매일성경으로 묵상하고 리더들은 말씀묵상학교를 수료해야 한다. 말씀 묵상학교는 필수 과정이다. 6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묵상 중에 질문 있는 부분의 본문은 교구 목사들이 조장님들과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 질문들과 나눔의 핵심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조장님들이 묵상님들하고 공유해서 묵상 소그룹이 그렇게 묵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신, 구약에 따라서 성경읽기를 하고 중고등부 되어야 묵상을 하게 된다.

3. [TEAM FEEDBACK]

김기선전도사

남서울 은혜교회는 성도가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교회라는 말을 통해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서울은혜교회는 장애인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 장애인 부모들이 찾아오고 탈북민들이 찾아오고 전 세대에 대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기에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30-40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와나와 파이디온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적인 교육과 활동을 역동적으로 진행하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재수생이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에 그들을 배려하여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별도의 예배를 만들어 재수하는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다르기에 동일한 모습으로 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교회 근처가 성수동 사무실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멀리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 고등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스터디 카페를 가는 상황에서 교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30-40대의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등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성민 교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학업 근처나 학생의 집근처에서 심방을 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도 좀 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지혜 교사

취약 계층을 생각하고 함께하려 애쓰는 마음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재수생예배,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부분이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향하여 실천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생활훈련학교에서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꼭 필요한 훈련 같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뭐가 가르쳐 주려하면 자식들은 부모 말을 새겨듣기 힘들어 하는 것 같거든요.

김기선 전도사

생활훈련학교에서 교육은 아이들이 아니구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따라 부모가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내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약간만 알려줘도 자녀와 잘 지낼 수 있는 것 이라고 합니다.

박윤정 교사

생활훈련학교 부분에 있어서 태교학교, 애착 부모학교, 아동, 사춘기, 청년기, 어르신등 각 세대와 생애에 걸친 생활 훈련학교를 통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꾸준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점이 아주 실제적이고 유익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박윤정 교사

어와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의 호응과 친밀감 형성하고 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해당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정나림 교사

주변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어와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로 옮기겠다고 할 정도로 어와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엄마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어와나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기 힘들다면 게임, 암송, 핸드북 등 일부라도 부서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정 교사

30~40대 젊은 부부 목장모임 활성화와 그로 인한 젊은 부부들의 단합이 좋아 보였어요. 결혼 후 교구에 가기를 어려워하는 부부들이 잠시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부부들과 공감하며 서로 믿음을 세워가면서 장년 교구로 가는 과정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장지혜 교사

젊은 부모들이 똘똘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40세가 되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 싫어한다는 것은 저희 교회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정나림 교사

30~40대 성도 젊은 부부 모임 이 말씀을 듣는데 저희 샘나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세대가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30~40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키우며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며 말씀삶을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의 일손이 모자라 문제가 된다면 교회 사역의 일부를 젊은 부부들에게 담당하도록 하더라도 젊은 부부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나림 교사

공감 되는 부분은 남서울 은혜교회는 교육프로그램을 파이디온을 사용하여 예배가 역동적인 것이 특징이고 그것으로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출석률이 거의 회복 되었다고 하는데 교회의 성장과 회복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되고 바람직하게 느껴졌습니다.